

# 일본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내외부 공간의 관계 조정과 경계 변화 특성 분석

##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djustment between Interior and Exterior Spac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Boundary Changes in Japanese Contemporary Architecture

○이 유 빈\*  
Lee, Yu-Bin

정 태 종\*\*  
Jeong, Tae-Jong

### Abstract

Space in architecture has long been divided dichotomously, and the two dichotomous spaces, exterior space and interior space, can be easily distinguished by several factors. This study tries to break down the dichotomous thinking that creates boundaries by focusing on the concept of space itself rather than the form of space (exterior and interior). Buildings that destroy this can be found in Japanese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at architecture through several cases. Through the expression methods revealed through research, external and internal spaces can be created as natural interconnected spaces rather than being used as opposing spaces, and furthermore, various architectural forms can be created.

키워드 : 경계성, 내부 공간, 외부 공간, 상호 관계, 연결적 관계, 공간적 상호작용

Keywords : Boundary, Interior Space, Outer Space, Interactivity Relationship, Connective Relationship, Spatial interactio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존의 건축 공간은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어 왔고 이분법적으로 나뉜 두 가지 공간인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은 경계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내부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외와 실내라는 경계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일반적인 건축물의 모습이다. 또한, 공간의 개념보다는 공간의 형태에 주로 주목하며 형태로 인해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개념에 주목한 현대 건축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허문다. 이를 허무는 건축물은 최근 일본 현대건축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가로는 후지모토 소우, SANAA, 토요 이토, 그리고 이시가미 준야 등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각 건축 사례 분석을 통해 그들의 공간 개념에 대한 표현 방식과 내외부 공간의 관계와 경계 변화 특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의미에 대해 문헌 고찰을 하고, 건축 사례들을 설정하여 외부공간과 내부공간

경계의 모호함이 무엇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건축 요소나 프로그램의 표현 방식을 통해 공간이 외부 또는 내부로 인지 될 수 있고, 건축가의 디자인으로 인해 경계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석한다.

### 2. 건축에서의 경계

건축에서의 경계란 사람들의 움직임과 인지를 통해 규정지어지는 개념으로 대표적인 경계의 예로는 공간을 구분하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있고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은 상호연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내부공간은 벽체, 지붕 등의 요소를 통해 형성되고 외부공간은 내부공간의 반의어로 인지되어 지붕이 없는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건축공간은 명확히 구분될 수 없고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인식적 차원에서 경험된다.<sup>1)</sup> 일본 현대 건축에서는 이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그 관점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

\*단국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학부생

\*\* 단국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12200482@dankook.ac.kr)

1) 광기표, 건축 내·외부공간 경계의 모호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통권 49호, 2005. p.20

### 3.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연결과 관계 방식

#### 3.1 내부의 외부화

후지모토 소우의 House N은 앞서 말한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의 두 가지 방법의 하나인 내부의 외부화가 된 사례로, 우리가 외부공간의 프로그램으로 여기는 정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부로 끌어들이 벽체와 지붕을 통해 형성된 내부공간을 외부화시켜 경계를 없앴다. 벽체를 통해 형성된 경계 안에 정원이 들어옴으로써 인간의 행동에 의해 규정지어지는 공간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다준다. 또한, House before House 건축물을 통해서도 보통 건물 내에서 일어나는 수직 동선을 외부에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실과 실이 외부공간을 통해 연결되는 방법으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하였다. SANAA의 Moriyama House는 내부공간의 복도라는 프로그램을 외부화함으로써 뚜렷한 내외부의 경계성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건물들의 사례를 통해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으로 규정된 공간을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세부화시켜 기존 건축에서는 내부공간으로 규정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외부화시킴으로써 공간 자체의 분리, 동선, 프로그램의 내부에서 외부로의 확장을 통해 내부의 외부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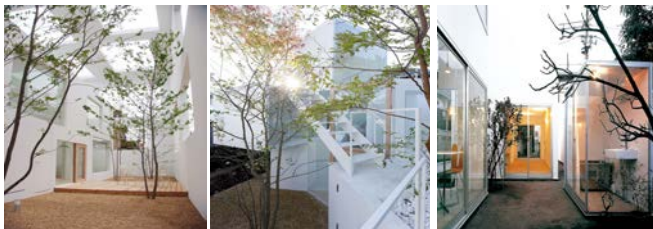


그림 1. Fujimoto Sou의 House N, House before House와 SANAA의 Moriyama House

#### 3.2 외부의 내부화

센다이 미디어테크를 건축한 토요 이토는 유리라는 재료를 통해 내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다. 내부공간의 투명한 유리 입면을 통해 내부에서 외부공간을 볼 수 있고 외부에서는 건물 내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며 건물의 외부와 내부가 상호작용하는 도시 속 건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SANAA의 테시마 미술관은 자연 위에 얹어놓은 쉘 모양으로 공간을 감싸며 내부 공간을 형성하는 듯하지만 천장을 그대로 노출해 외부공간의 특성은 유지한 채 자연에 어우러진 외부와 내부를 이어주어 안과 밖의 유동적인 연결을 형성해 낸다. 이를 통해 테시마 미술관의 관람객은 이 공간을 내부로 인지할 수도 있고 외부로 인지할 수도 있다. 가나자와 공대에 위치한 이시가미 준야의 KAIT(Kanagawa Institute of Technology) Plaza 역시 외부로 끌어올려 공간의 깊이가 생기고 곳곳에 보이드를 형성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공간의 내외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어 경계성이 모호해진다. 공간의 보이드, 투명성을 가진 건축 재료의 사용으로 외부의 모습과 내부의 모습이 어우러져 외부공간이 내부공간과 동화되는 외부의 내부화가 이루어진다.



그림 2. Toyo Ito의 Sendai Mediatheque, SANNA의 Teshima Art Museum, Junya Ishigami의 KAIT Plaza

여섯개 건축 사례 각각의 특성을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일본 현대건축 사례 분석 결과

건축물	표현 방법	공간 연동
House N	외부 프로그램의 내부화	내부의 외부화
House before House	수직 동선의 외부화	내부의 외부화
Moriyama House	내부 프로그램의 외부화	내부의 외부화
Sendai Mediatheque	유리를 통한 외부와 내부의 연동	외부의 내부화
Teshima Art Museum	보이드를 통한 외부와 내부의 연동	외부의 내부화
KAIT Plaza	보이드를 통한 외부와 내부의 연동	외부의 내부화

각 건축물은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경계성을 허물고 있다. 표현 방법으로는 프로그램, 동선, 재료, 보이드를 통해 나타나며, 그에 따른 공간 연동의 주체가 달라진다.

### 4. 결론

이 연구는 일본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내외부공간의 관계와 경계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형성 방법과 경계성에 대한 표현 방법의 특징은 기존의 내외부공간의 표현법과 다르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에 의해 규정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은 반대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연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내부공간을 외부공간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외부공간을 내부공간으로 흡수시켜 공간의 개념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분석 결과, 기존 내부 프로그램의 외부화, 재료의 사용, 외부와 내부의 자유로운 동선을 통해 나타나는 시각적, 현상학적, 물리적 공간의 다양한 경계 표현을 통해 건축에서의 정형화된 이분법적 사고가 다양하게 발전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다양한 건축물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광기표, 건축 내·외부공간 경계의 모호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통권 49호, 2005
2. Sou Fujimoto, Architecture Works 1995-2015, TOTO
3. 김명화, 현대건축에서 경계공간을 통한 내부의 이질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원 건축학과, 2008